

# 신안 여객선에 대형트럭 적재... 이용객 "전복 불안"

5톤 트럭, 일반 여객선 이용  
군민 "사고날까 늘 아슬아슬"  
현행 차량별 세분화 규정 無  
목포해수청 "선적제한 검토"

"저렇게 5톤 대형트럭을 여객선에 실어 버리면 소형차들은 들어갈 공간조차 없으며 타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배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안 섬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연안 여객선(차도선)이 무분별하게 대형화물차 등을 선적하면서 안전상 이용문제 등 지역민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해운법 규정상 여객선에 소형차, 대형트럭, 배기량 등 차종별 선적 가능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여객선 이용자와 운항자 등이 정부에 규정 보완 등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차량 선적 규정 수정·보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남강에서 가산까지 14회, 목포-신의 3회, 목포-하의 2회, 목포북항서 4회, 지도송도-병풍 4회, 증도에서 자은, 압해인근 구간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섬 지역 개발공사가 이뤄짐에 따라 5톤 트럭 이상의 공사 관계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다는 점이다. 소금·농수산물 등 유통물량 역시 늘면서 여객



신안군 한 선착장에 대기 중인 대형 트럭들. 소형 여객선에 탑재되기 때문에 전복 등 안전상 위험을 안고 운항하고 있어 섬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여객선 선주들까지 선적제한 등 세분화된 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을 이용하는 트럭탑승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형트럭이 배에 실릴 경우 안전상의 이유와 이용계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한 주민은 "5톤 트럭 이상 대형 화물차들이 운임비를 아끼려고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대형트럭들은 사각지대도 많고 1대를 실을 경우 소형차 3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형차주들은 다음 배를 이용해야 한다"며 "대형트럭 운임료를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해운법에는 배에 차량을 실었을 경우 총중량 무게로만 운항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소형차, 대형트럭, 배기량 등 차종별 선적 가능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주들은 대형트럭 차주들에게 선적 거부사를 밝히기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완 대흥페리 소장은 "암태 남강항에서 비금 가산항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대형화물차는 차체가 커 사각지대가 많아 승·하선시 운항 직원이 항상 긴장하며 대형트럭 승·하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가능여부 규정이 총중량제로만 규정돼 있어 대형트럭에 대해 승선 거부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14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여

객운송 서비스 질향상과 안전을 위해 선박의 개량·증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대형트럭 선적으로 인한 군민들의 이용·안전상 문제점에 대해 트럭 운임료 상향 등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도서민의 왕래가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섬지역 곳곳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사 차량들이 늘면서 이용객들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며 "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선적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톤 트럭에 대한 요금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마련·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신안 홍일갑 기자

## 청년공공임대주택 11월 착공 해남군, 12~24평형 62세대

해남군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5월 설계공모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면 11월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2025년 말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91억원, 군비 60억원 등 151억 원을 투입해 해남읍 구교리 4617㎡ 일원에 건립한다. 12평형 8세대, 18평형 26세대, 24평형 28세대로 연립주택 3동, 62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 대상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여수시, 8월까지 읍면동 순회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31일부터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 2명과 공무원 1명 등 3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들을 예정이다.

상담은 예약제지만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시정사항·단순민원 등은 현장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내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제3기 김기재 대표옴부즈만은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기부실적 반영 입찰계약제 시행 전남개발공사 '전국 최초'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종모)가 전국 최초 입찰계약 평가시 공사계약에 이어 물품 계약까지 사회공헌 기부실적을 확대·반영하기로 했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1억원 이상 물품 입찰계약의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 이익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추가하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승인했다.

물품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품제조는 직전 연도 매출액 0.03%, 물품공급은 매출액의 0.02%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게 된다.

공사는 지난 2021년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분야에 기부실적을 반영한 입찰계약을 도입·운영하여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물품분야는 시설공사 대비 발주량이 많고 발주금액별로 적격심사 기준이 다양하며 평가배점 또한 상향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사에서는 한 달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시설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도입된 이번 계약 제도를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왕우렁이 관리기술 현장연사회 전남농기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자연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비 재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왕우렁이 안전관리기술 현장연사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남군 소재 친환경 비 재배단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생태원, 순천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친환경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전남농기원,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동양화학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왕우렁이 농업적 활용을 위한 생태계 안전 관리기술 개발' 결과로 △왕우렁이 유입·유출 차단 △사용 후 효율적인 수거방법 △수거한 왕우렁이를 활용한 퇴·액비 등 기술을 선보였다. **박간재 기자**

## 장흥군, 축제발전방안 토론회

장흥군은 최근 '축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 군수가 주재한 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견인하기 위해 지역 축제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흥군은 현재 10여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일부 축제가 지역단위 축제에 머물러 있고 시기별 분산 개최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시기별·계절별 통합축제 개최방안, 장흥 삼합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 축제 개최방안, 문림의향 장흥 이미지에 걸맞은 문화제 개최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장흥=김진환 기자**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연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비 재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왕우렁이 안전관리기술 현장연사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 해수부, 고흥에 9번째 귀어학교 문 연다

고흥군이 해수부 선정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가 됐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정착하는 초기 사립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를 하고 있으며 고흥귀어학교는 해수부 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 설립되며 연 100여 명의 수료생이 배출된다.

귀어학교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 귀어 희망자들은 5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과 관련된 이론, 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다. 고흥군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

귀촌 행복학교와 귀어학교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업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억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 창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업창업 후 3년 동안 매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자금도 지급한다. **김은지 기자**

## 전남도, 해남황칠나무 '지리적표시품 등록'

등록 9개품목으로 늘어

난대 수종인 '해남황칠나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심의회의 제61호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이 지난

2017년 지리적표시를 신청한 해남황칠나무는 역사성·우수성 미흡 등 이유로 등록되지 못했다. 하지만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자료를 보완해 올해 재신청한 결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됐다.

해남황칠나무는 원산지 수준을 넘어

역사성 유지,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 방식 차별화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지역 우수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지리적표시 특산물 경쟁력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며 판로 확대를 통해 임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